

지역 영화인 ‘시선’ 스크린서 만나볼까

광주독립영화제, 25~28일 광주극장·독립영화관서 ‘메이드 인...’·‘오월이야기’·‘위은경 배우전’ 등 33편



개막작 ‘세상은 그렇게 끝났다’



폐막작 ‘출업앨범: 선생님을 기다렸다’



개막작 ‘특근’

독립영화 특유의 개성과 에너지로 지역 영화인들의 시선을 담아내는 ‘광주독립영화제’가 관객들과 만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작품부터 국내외 독립영화까지 한 자리에서 소개하며 지역 독립영화의 현재와 가능성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제15회 광주독립영화제’를 선보인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폴짝 뻥작 Indie Go!’다. 독립영화 특유의 개성과 경쾌한 에너지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지역 영화인들이 함께 도약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단편 2편을 포함해 총 33편의 국내외 장·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메이드 인 광주’, 광주 출신 배우이자 감독인 위은경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위은경 배우전’, 5·18과 민주주의를 다룬 ‘오월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교류전: 전남’도 기대되는 섹션이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김태휘 감독의 ‘특근’과 문혜인 감독의 ‘세상은 그렇게 끝났다’로, 서로 다른 결의 작품을 통해 영화제를 다채롭게 열 것으로 기대

된다. ‘특근’은 개막식이 열릴 광주극장에서 전 분량이 촬영된 작품으로, 영화 촬영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영화적 경험을 선사하고, ‘세상은 그렇게 끝났다’는 서부지방 폭동의 현장을 포착한 다큐멘터리로, 기록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스크린으로 소환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독립영화관 GIFT에서 본격적인 상영이 이어진다.

지역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광주 신진 감독전’ 섹션에서는 ‘이름들’(이예지)과 ‘아빠를 팝니다’(한창현), ‘빈집털이_작가노트’(박래현), ‘소시오’(노효훈) 등이 스크린을 채우고, ‘메이드 인 광주’ 섹션에서는 ‘첫어름’, ‘털썩... 별뿔’, ‘깃털샘과 날개들’, ‘빈틈’, ‘교차점’ 등 지역 청년 창작자들의 시선과 삶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광주 출신 배우 위은경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위은경 배우전’도 눈길을 끈다. ‘선희이모’와 ‘어쩌다 이지경’, ‘파도 사이 미래’ 등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해온 그의 다양한 작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오월이야기’ 섹션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총 8편이 상영된다. ‘시네마 속 5월’을 비롯해 ‘얼굴, 얼굴들’, ‘꿈을 마주하는 힘’, ‘조금 긴 독백’ 등을 통해 지역

의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독립영화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질문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퀘벡 지역 영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스 부츠’, 해외 초청으로 ‘The Harsh Journey’를 각각 선보여 지역성과 세계성을 함께 담아낸 작품들을 소개한다.

폐막작으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날, 전주 신학교 학생들의 계엄 철폐 시위를 배경으로 한 김종관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출업앨범: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스크린을 장식한다.

이외에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을 갖는다. 창작 과정과 작품의 의미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관객과 창작자가 가까이 호흡하는 독립영화제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15회 광주독립영화제는 국·영문 및 중문 자막을 제공한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공식 시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막작을 제외한 일반 상영작의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누리집 또는 예매 플랫폼 무비애를 통해 가능하다. 개막작 ‘특근’과 ‘세상은 그렇게 끝났다’, 해외초청섹션 ‘The Harsh Journey’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영작 입장료는 5000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외로운 녀 위로하는 ‘영혼의 흔레’ 무대서 되살린다

‘2026 국음악축제’ 4~6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일원 지역별 무속의례·학술회의·사주·타로체험 등 ‘다채’

생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라도 맺어주고자 했던 사람들, 죽음으로 끊긴 인연을 이어주고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행해졌던 전통 무속 의례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일원에서 ‘2026 국음악축제’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저승혼사귀-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다.

이번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결혼식 문화를 공연예술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속에서 저승혼사귀는 생전에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혼례를 치러주는 의례다. 과거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승됐지만 산업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점차 지취를 감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이같은 전통 의례를 단순한 민속문화가 아닌 음악과 춤, 서사와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바라보고 무대예술로 재구성했다. 진도와 동해안, 제주 등 지역별 특색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저승혼사귀를 한 자리에서 감상가능하게 구성한 것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4일 오후 7시에는 국가무

형유산 진도씻김굿보존회가 ‘저승혼사귀’를 선보인다. 진도씻김굿은 망자의 한을 풀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남도 무속 의례로 꼽힌다. 공연에서는 혼인을 이루지 못한 영혼을 위한 혼례 절차와 씻김 의식이 펼쳐진다.

이어 5일 동해안별신굿보존회의 ‘망자혼례극’이 무대를 채운다. 동해안 특유의 역동적인 장단과 소동 중심의 의례 구조를 바탕으로 죽은 이들의 혼례를 재현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주큰굿보존회의 ‘제주혼사귀’가 대미를 장식한다. 제주 무속만의 독특한 신관과 상징체계를 담은 공연으로, 같은 영혼결혼식이라도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승돼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공연뿐 아니라 국음악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4일과 5일 양일간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저승혼사귀’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나경수 명예교수(전 남대)가 ‘저승혼사귀 현황과 활용사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고, 이경영 교수(목포대)의 ‘호남의 저승혼사귀’, 김현선 교수(경기대)의 ‘혼인여담과 사혼의 비교 연구’, 구수경 민속음악 연구자의

‘저승혼사귀 의례와 음악’ 발표가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허용호 객원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영식 교수(전남대)가 저승혼사귀의 물질문화와 음악의 해외 사례를 발표한다.

5일 오전에는 진도와 동해안, 제주 지역 굿보존회 예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도 열린다. 각 지역 영혼결혼식 문화의 특징과 전승 과정, 무속음악의 의미 등을 관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사주·타로 체험과 심인불 명상 프로그램, 인생네컷 촬영 등이 운영된다. 진도 특산물 시식·판매 행사와 커피트러도 마련돼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진도군 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해 6일 오후 4시부터 진도읍 철마공원 광장에서 ‘굿데이(Good Day: 오늘, 가장 좋은 날)’를 운영한다. 행사는 전통 국음악과 민속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야간형 체험축제로, 진도 민속공연과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댄스, LED 퍼포먼스, 공예체험, 먹거리 장터 등이 어우러져 세대와 장르를 넘나든다.

박정경 원장은 “이번 국음악축제는 우리 전통 무속음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상상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부질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결핍 탐색

문희진 개인전 7일까지 양림미술관 ‘맨몸에 얹어 둔 욕망의 무게’ 상기



‘고민중’

“그때 닭을 키우면서 닭이 너무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예쁘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살더군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유익함도 많고 그러지만 인간한테 당하는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안타깝다는 심정 때문에 계속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크갤러리에서 ‘암탉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제17회 개인전을 열었던 문희진 작가가 당시 밝힌 내용이다. 그의 그림에 유난히 닭이 많이 등장하는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멘트다. 이번 그가 이번에는 양림미술관에서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전시는 ‘목욕탕’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7일 개막, 오는 7일까지다. 이번 전시에는 ‘고민중’과 ‘폭포’ 등 7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금강’처럼 닭 작품을 만날 수 있지만 목욕탕이라는 스토리를 통해 비탄해 진 욕망을 꼬집고 있다. 그의 이번 작품들은 시대적 시각에 기초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서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빼돌려보기를 시도하는 듯하다.

표현하고자 한 메시지를 유난히 비대칭적으로 확대해 표현한 대목에서 그가 말하고자 한 메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색채는 컬러풀하지만 색상이 튀거나 부조화로 인한 작품의 자연스러움이 감소하거나 하는 것 따위가 읽히지 않는다. 그가 구사하는 색채와 구도, 비율 등이 풍자나 유희라고 하는 장지에 부합한다는 점 또한 그의 작품에 집중하게 된 이유다. 거추장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 작품을 쳐다보게 만든다.

특히 작가는 그동안 주인공을 갈구하는 스토리 같은 강아지와 배조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닭을 통해 인간 내면의 일그러진 집착을 표출한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 욕망의 실체를 포장지 없이 직접 마주하기로 했다. 그래서 작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의 우리가

모이는 곳으로 대중목욕탕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우리는 순간 두 장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겨우 가려야 할 곳만을 가릴 수 있을 뿐이다. 발가벗었기에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체득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욕망이 넘치는 인간 본연의 알몸을 내 보임으로써 부질없는 욕망의 실체를 강조한다. 욕망을 가득 채워도 결국 발가벗으면 모두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제발 욕망을 비우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던지는 듯 여겨진다.

문 작가는 ‘목욕탕-벗었는데 못 벗은 것들’이라는 자서를 통해 “‘심심하지 않은 목욕탕 영화’를 통해 맨몸 위에 얹어 둔 욕망의 무게를 잠시 유쾌하게 웃어넘기며 마주해 보길 기대한다”면서 “벗었지만, 못 벗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희진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 개인전 17회와 중국 등 해외를 망라한 단체 및 그룹전 150여 회에 출품했다. 무등미술대전 대상(2024)과 여수사생대회 대상(2011), 전남도전과 광주시전 및 남동대전, 나혜석전 등 특·입선(2017~2018)을 두루 수상했다. 한국미술협회와 광주기독교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광주미술협회 서양화 분과 이사를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진도씻김굿보존회 ‘저승혼사귀’